

擇里志의 文意的 考察

鄭 基 浩

成均館大學校 造景學科

A study on the second intention of Taek-li-ji

Jung, Ki-ho

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Sung Kyun Kwan University

Abstract

In general, Taek li-ji is noted for its reliable source in studies on the old Korean culture. But when we examine it in detail, we can find its contrary propositions with regard to the context; for the thematic question of the good place to settle, that is the leitmotiv of Taek li-ji, opinion, in consideration of the place of good settlement, has the author the conclusion; nowhere, but by means of "I Ging" can be found a good one - place of no place. In the text, we find some other questionable points.

In means that the content of this book must be to make understandable and we need a solution of the contradiction in context. I think it might be intended by the author. In this study I have tried, the intention of the author to find and the context to review, in order to interpretate the text and to resolve its contradiction. And I have earned a hidden opinion of the author, the second intention of the book.

1. 序

擇里志¹⁾는, 士大夫가 살 만한 곳은 어디인가, 라는 命題를 놓고 八道에 관한 著者の 경험과 많은 자료들을 통하여 극히 實學者的 立場에서 서술한 내용을 담고 있다. 거기에 담긴 朝鮮朝 後期の 社會, 文化, 歷史에 관한 내용이나 著者の 見解들은 혹은 社會制度나 時俗의 理解를 위한 資料로써, 혹은 傳統的 觀點에서 본 八道の 地理나 實事求是의 生利

的 側面的 資料로써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 의해 활용되고 있다. 擇里志는 내용면에서 여러 방면에 걸친 풍부한 자료를 담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特定의 特定한 研究分野나 考察觀點에 따라서는 四民總論, 八道總論 또는 卜居總論 등 擇里志의 특정부분이 증점적으로 다루어 지고 있다. 그 한 例로써 傳統部落이나 歷史景觀의 觀點에서 취락경관을 다루는 立場에서 볼 때, 擇里志의 卜居總論은 중요한 資料處가 된다. 그 중에서 「地理」나 「山水」는 특히 밀

* 1989年 11월 10일 접수된 논문임.

1. 擇里志는 '擇리에 관련된 생각들을 통하여 자신의 뜻[志]을 세운 것'이라는 意味와 '擇리에 관한 書誌'라는 意味로 해석될 것임.(志=誌; 三國志· 匈奴五志) 擇里志를 文意的으로 解釋해 보려는 本稿의 見地에서는 뜻[志]의 意味가 강하게 내포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음으로써 적지않게 거론되어 왔거나 인용되어 왔다.

擇里志의 주된 性格은, 身分 및 社會制度에 관한 見解(특히 四民總論), 八道에 관한 人文地理的 考察(특히 八道總論), 그리고 擇里와 관련한 實事求是의 解釋(특히 卜居總論)등으로 要約될 수 있다. 이들과 각 부분의 고찰을 통한 總體的인 結論, 즉 士大夫가 살만한 곳은 어디인가, 에 대한 著者의 所見은 總論에 集約되어 있다. 總論은 곧 擇里志의 全 內容이 要約整理되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실제의 내용은 특히 四民의 내용과 관련된 社會制度의 否定的인 側面들이 集約되어 있고 그에 대한 하나의 終結은 東西南北 살 곳이 없다, 라는 극히 否定的인 意味가 담긴 말에 이르게 된다.²⁾ 擇里志가 四民, 八道 및 卜居總論의 전반적인 서술에서 크고 작은 모순적 서술을 보여주고 있듯이, 總論에서의 否定的인 表現에 이어 비약된 새로운 見解를 피력함으로써 끝맺고 있다.³⁾ 이 비약된 見解는 四民總論이나 八道總論의 誤解의 소지가 있는 것, 비약, 전도 또는 모순된 내용을 담은 서술이 「人心」을 제외한 卜居總論의 서술과 큰 차이를 보이는, 얼핏 이해되지 않는 점과 같은 흐름상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本稿의 취지는 이 否定的으로 보이는 所見이 궁극적으로는 극히 肯定的인 見解의 새로운 觀點의 提示로써 수용되어야 할 것이란 점을 밝혀 보고자 한 데 있다.⁴⁾ 이를 위하여는 먼저 太極圖에 의한 ‘땅 아닌 땅’(非地之地)에 비약된 論旨과 내용해석에 관련된 論議가 필연적으로 따르게 된다. 이러한 論議는 또한 각 부분에 보이는 크고 작은 상호마찰을 이루는 一見 모순된 서술들이 동시에 合理的으로 설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內包하고 있다.⁵⁾ 그리하여 擇里志의 根本的인 再考 - 否定的인 부분·誤解의 소지가 있는 부분 및 이들과 관련된 눈에 띄는 특징에 대한 검토-의 必要性이 提起된다. 本稿에서는 이러한 검토의 必要性에 따라 擇里志의

흐름을 파악하고 著者 李重煥의 著述動機 또는 心中意圖를 具體化시켜 봄으로써 그 眞意의 검토를 試圖해보았다.⁶⁾

2. 擇里志의 一般的 解析과 本稿의 觀點에 대하여.

擇里志는 보편적으로 人文地理書로 수용되고 있다(全相運, 1976 : 330 ; 崔昌祚, 1984 ; 255 ; 鄭杜熙, 1988 : 119). 目次別 細部內容에서의 人文地理的 解析이 歷史的 事實의 서술을 통한 實證的 資料 및 史料에 의해 전개되는 점도 없지않고 특히 四民總論에서 四民의 發生과 그것의 歷史的 展開過程으로써 설명해 본 것이 擇里志 전체 흐름의 중요한 觀點되고 있음으로써 內容의으로는 뚜렷한 史觀에 입각한 史書로서의 性格을 지니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이다(鄭杜熙, 1988 : 120 참조).

무엇보다도 李重煥은 士大夫가 살 곳은 어디인가, 하는 큰 命題를 놓고 풀어나가는 體制를 취함으로써 擇里志가 취하는 주된 方向을 地理書의 性格을 지님을 명백히 하고 있다. 머릿말에 해당하는 四民總論과 맺는말에 해당되는 總論과 함께, 八道總論과 卜居總論으로 구성된 本論의 내용은 一見 人間(즉, 四民)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갈 것으로 파악될 수도 있다.⁷⁾ 그러나 정작 四民總論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사항들은 四民이 고착되어 가는 歷史的 內容에 의거하고 있고 八道總論이나 卜居總論의 「人心」에는 四民에 관한 것이 극히 社會制度上의 병폐에 관한 내용으로 一貫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社會制度上의 비평적 서술은 전체의 人文地理書로서의 성격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인가. 鄭杜熙는, “李重煥은 왜 擇里志를 그러한 方式로 저술하였을까? 일반적으로는 이 책을 地理書라고 하지만 地理書를 서술하려는 것이 저자의 근본동기가 아니었음은 지금까지의 설명으로도 잘 알 수가

2. …故曰東亦不可居而亦不可居南亦不可居北亦不可居

3. 如此則將無地無地則無東西南北無東西南北則便一混論太極圖也… 此謂非地之地於是乎作士大夫可居處記

4. 擇里志의 肯定的 受容, 그러나 단순한 首肯이 아니라 內在된 모순점들이 충분히 설명된 연후의 眞率한 解釋이 要求됨. 이는 擇里志의 景觀解析을 위한 資料의 活用과 관련한 本人의 一聯의 考察의 先在事項이기도 함.

5. 이러한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擇里志는 지금까지 認定되어 온 바와는 달리 모순된 著述의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주는 점이 없지 않고, 또 한편으로는 진정 훌륭한 저술로 수용되기 위하여 이러한 의구심을 벗기기 위한 세심한 검토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鄭杜熙는 ‘擇里志의 숨은 뜻’을 밝혀 일반적으로 알려진 地理書가 아닌 歷史書로서의 性格을 규명해 보려했으나 역시 未洽한 점을 남기고 있다. : “...그 가운데 산천(本稿에서는 「山水」로 사용)만 제외하면 모든 내용은 곧 역사서술에 알맞는 것이다. ...그러므로 태리지를 지리서라는 관점으로부터 취급하는 것은 본 뜻을 제대로 파악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鄭杜熙, 1988 ; 136)

6. 本稿에 사용한 擇里志의 原文 및 그 國譯은 李翼成 譯本(李翼成, 1979)에 의한 것이며 필요한 경우에 要約 또는 意譯整理하여 사용하였음.

7. “李重煥은 人間과 自然과의 相關성을 기반으로 취락의 최적장소를 발견코자 하는 목적으로...”(Yoon, 1971, 崔昌祚, 1984 ; 245 재인용)

있다.”⁸⁾(鄭杜熙, 1988; 135)라고 말하고 있다. 그의 주장은 곧 歷史家로서의 李重煥을 파악해 보려는 것이며 그것은 또한 擇里志를 歷史書로써 파악하고자 하는 의도로 볼 수 있다. 韋元學은 광역국토계획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써 파악하여 擇里志의 내용을 오늘날 地域 및 國土計劃을 위한 내용으로 체계를 세워 본 바가 있다.⁹⁾ 이렇듯 다른 전문분야의 관점에서 또는 擇里志를 보는 觀點을 달리할 경우 그것은 불가분 그 각각에 해당되는 저술로 수용될 수 밖에 없다.¹⁰⁾

이러한 여러 갈래의 見解와 解析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 것이냐. 李翼成은 擇里志의 성격을 그것이 지니고 있는 많은 명칭으로써 분류해 보고 있는데, 「擇里志」란 것은 著者 자신이 붙인 명칭이라 생각되지만, 「八域可居地」란 것은 失勢한 양반으로서 낙향하기를 생각하던 계층이 살기 좋은 곳을 선택하려는 눈으로 보았던 것이며, 「東國山水錄」, 「震維勝覽」등은 시인묵객이 山水에 우람하려는 생각으로, 「東國總貨錄」은 상업하는 사람이 각처 物産과 교통의 이용관계를 참고하기 위하여, 「形家要覽」은 風水가 좋은 터를 잡기 위하여 읽으면서 명칭을 붙인 것이라고 짐작되는바, 擇里志는 이와같은 다채로운 내용을 구비하였다.”(李翼成, 1979; 10)고 보고 있다. 이처럼 擇里志는 오늘날 뿐 아니라 예로부터 여러갈래의 觀點에 따라 여러가지의 모습과 성격으로 수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重要的한 것은, 그러면 李重煥의 著述動機 또는 意中은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보는 데 있을 것이다. 跋文에서 그 자신이 밝히기를, “黃山江의 八卦亭에 올라… 우리나라의 山川·人物·風俗·정치 교화의 연혁·政治의 잘 잘못을 논한 것을 가지고 차례를 엮어 기록한 것”이라 하였다. 또한 그는 孔子와 莊子의 경우가 각각 “사실을 가지고 (現實에 관한) 자신의 뜻을 표현한 것”과 “실체가 아닌 것을 가지고(理想에 관한)자기의 뜻을 나타낸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곧 李重煥 자신이 擇里志를 통하여 자기의 뜻을 뽐는데 그것에는 「실체인 것」과 「실체가 아닌 것」이 「글 밖의 것」, 즉 擇里志에

글로써 서술되지 않은 숨은 뜻(2次개념, second intention)을 독자가 생각해 주기를 바라고 있음을 비친 것이라고 볼 수 있다.¹¹⁾

擇里志는 우리나라의 山川·人物·風俗·政治에 관한 것을 가지고 엮은 것이기 때문에 그 각각의 資料들이 극히 實學者의 立場에서 잘 담겨 있다. 그리하여 後世에서 그 내용들이 잘 활용되었고 各各의 觀點에 따라 歷史書·地理書·地域計劃理論…등의 무수한 전문서로 규정되어 온 셈이다. 그 각각의 경우의 어느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를 밝혀보는 것 보다는 一面 이러한 규정들은 現代에 있어서 극히 分化된 전문분야적 편중된 경향에 의한 觀察의 해석은 아닐까, 하는 각도에서 관찰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또한 跋文에서의 黃山江이나 八卦亭이 어디에 있는 어느 정자를 말하는가, 하는 그것들의 존재 여부를 밝혀보는 것은 且置하고 이들을 굳이 언급한 것은 무슨 연유이며 孔子와 莊子가 취하려 했던 각자의 「뜻을 세우는 과정 또는 방식」을 李重煥 자신의 뜻과 결부시켜 보려는 意圖는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擇里志의 全般의인 해석이 풀려 가리라고 생각한다.

그가 품은 意中을 한마디로 단언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 일지 모르나 序·跋文의 知友들의 글¹²⁾에 비친 공통된 내용으로써 어느정도 짐작할 수 있을 듯하다. “사람이 살아가는 이치를 내가 論한다면, 물과 불에 대해서 먼저 살펴 보는 것이 마땅하다. 다음은 五穀이고 그 다음은 풍속이며 또 다음은 山川景致가 좋아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篔川村墅에 살고 있으나 물은 활 두어 바탕 되는 곳에서 길어오고 火木은 십리 밖에서 가져온다. …대체로 樂土는 못되며, 可取할 점은 오직 江山이 훌륭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士大夫로서 …이리저리 옮겨서 붙어살다가 능히 크게 떨치지 못하면 나라를 잃어버린 죄와 같게 된다. 그러므로 내가 이모저모 돌아보고 머뭇거리면서 능히 이 篔川을 떠나지 못하는 것이다.”(丁茶山·跋; 李翼成, 1979; 282, 284) “저처한다는 것은 나의 肉身을 편하게 하는 것이니, 곧 外形의인 것이니, 마음에 즐거움을 느끼는 것은

8. 鄭杜熙는, 李重煥의 생애를 살핀후, 주로 「人心」을 중심으로 당쟁에 관한 그의 견해를 찾고 역경 속에서 찾은 새로운 세계, 즉 그의 ‘의식변모’를 「生利」의 검토로써 고찰함으로써 택리지의 地理가 아닌 당쟁사와 관련된 歷史書임을 말함.(鄭杜熙, 1988참조)

9. “擇里志는 단순한 實學思想을 바탕으로 서술된 地誌로서가 아닌 地域理論의 체계를 지닌 地域理論 문헌…” (韋元學, 1985: 1)

10. “살만한 곳을 생각하면서 무엇보다 生利를 중요시하게 되었던 것이다. …저자는 이 책 全篇을 통해서 이점(生利)에 가장 힘을 기울인 듯하다.”(李翼成, 1979; 5-7)

11. 이것은 (擇里志는) 살 만한 곳을 가리려 하나 살만한 곳이 없음을 한탄한 것이다. 그러나 이 글을 넓게 보는 사람은 文字 밖에서 참 뜻을 구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李重煥, 跋; 李翼成, 1979; 276)

12. 李翼成 譯本에는 序2 跋5의 글이 原文없이 소개되어 있다. 跋文中 하나는 李重煥 자신의 글이다. “擇里志가 완성되자 여러 知友 學者들이 序文과 跋文을 썼으며”(李翼成, 1979; 9) 跋文中 4편은 末松保和氏의 <靑丘史草>에서 抄出하였고 1편은 與猶堂書에서 발견한 것(李翼成, 1979; 10)의 國譯임.

이런데에 있지 않는 것이니, 곧 內面的인 것이어서... 진실로 內面과 外形의 分別을 능히 살피서 빈 배[舟]와 같은 심경을(닦는다면)... 무슨 살 곳을 반드시 가릴 것인가.”(陸會敬, 跋; 李翼成, 1979: 281)

대체로 자신의 跋文과 知友들의 글들을 四民總論의 내용과 함께 살펴볼때 그는 어떤 모습의 理想郷을 그려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그 擇里志의 내용을 大分하여 그의 意中을 생각해 보면, 人間이란 要素, 즉 지극히 本然的인 性情으로서의 人間意識을 통하여 살펴 본 山川과 文化의 特性을 그 外形構造로 하여 그에 따른 일정한 內的意味를 理想郷이란 그릇에 담아 놓은 것으로 판단된다. 總論에서 언급한 그의 擇里志에 대한 결론을 통하여 그 이상향의 언저리를 살펴 볼 수 있다. “士大夫가 때를 만나지 못하면 갈 곳은 山林 뿐...(그러나) 쉽게 가지도 못한다. 어디로 갈 것인가... 사대부임을 후회하고... 農工商을 부러워한다. 物이 극도에 달하면 되돌아 오는 것인데 진실로 이치가 그러하다. ... 동서남북 살 곳이 없다. ...그러면 동서남북이 없고... 사물 구별이 확실하지 않는 하나의 太極圖...이것을 땅 아닌 땅이라 한다.” 땅 아닌 땅-이것이 士大夫가 살 만한 곳에 대한 記의 核心인 것이다.

太極圖, 火生於木 火發必剋, 物極則反固其理然(物이 極에 달하면 되돌아 오는 이치)등은 易의 原理와 상관된 개념들이다. 易은 곧 ‘萬物은 변한다’는 觀點에서 시작되며 그 변화는 陰陽에서 비롯된다. 陰陽은 太極에서 비롯된 對比되는 두 기본요소이다. 東西南北이 없고 事物의 區別이 없는 「하나」(太極)가 萬物生成의 기본요소인 陰陽의 「둘」이 되는 것은 萬物을 生成시키는 發動要因이기도 하다. 四民의 區別이 없던 때로부터 士·農工商이 區分된 것은 「하나」가 「둘」이 되는 발단이며 그것은 동시에 四民을 活氣있게 해 줄 수 있었던 原動力이기도 하다. 士는 士로서, 農工商은 또한 각각에 적합한 일과 임무로써 수행되는 것은 現實에서의 理想郷이다. 李重煥은 擇里志의 첫머리(四民總論)에 “옛날에는 士大夫란 것이 따로 없고 모두 民이었다”라고 시작하고 있다.

“...舜임금은 堯임금 때에 士大夫였으나, 農工商의 일을 하고도 수척로 여기지 않았다... 혹 士大夫라는 명호로써 農工商을 업신여기고 農工商의 신분으로서 士大夫를 부러워 한다면 이것은 모두 그 근본을 모르는 자이다. ...그러나 士大夫라는 명호가 없어지지 않는 것은, 옛 성인의 법을 준수하는 때문이다. 그러므로 士이거나 農工商이거나 막론하고 士大夫의 行實을 닦는 것이 마땅하다.”李重煥의 생각

은 어디까지나 四民에 관한 理想郷이 前提가 된데에서 시작된다.

3. 擇里志 構成과 卜居總論의 검토

四民總論에서 李重煥은 民이 四民으로, 그리고 그 수평적 구조의 四民이 士와 農工商의 수직적 구조의 상하계층으로 고착되어 버림을論했다. 택리지의 서술체계는 이러한 四民에 관한 전체 下에 八道에 관한 제반사항과 擇里와 연관된 卜居에 관한 일을 살펴 본 바가 되며, 그로부터 우리는 八道와 卜居를論하는 動機에는 四民이 上下階層으로 고착된 데서 기인된 문제의식이 깊이 介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擇里에 관한 八道總論 및 卜居總論에서의 검토를 한 연후에도 불구하고 總論에서 밝힌 바와같이 ‘士大夫의 갈 곳이 아무데도 없는 것’은 擇里志의 흐름에서 나타나는 커다란 모순점이 된다. 이 모순된 흐름의 원천은 무엇인가. 總論에서 ‘땅이 아닌 땅,(그것이 곧) 士大夫가 살 만한 곳’이라 하게 된 것은 기실은 社會制度上的 惡習으로 인한 士大夫階層에 의한 현실적 병폐에 기인하는 것이며 그러한 상황에서는 地理·生利·山水의 좋은 조건이 있다하더라도 ‘살만한 곳’으로서는 無意味해진다. 땅이 아닌 땅, 즉 當時의 現實에 대한 하나의 理想郷(특히 四民에 관한 理想郷)을 염두에 둔 것이 八道總論과 卜居總論의 서술에 연관되어 있을 것임을 유추해 보게 된다.

만약 ‘士大夫에 의한 현실적 병폐’라는 강한 論調를 이루는 要因이 배제될 때, 즉 그점과 관련된 理想的狀況을 설정해 볼 때 八道總論이나 卜居總論을 통해 서술하고자 했던 내용은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작업가설① 참조)

八道總論의 서술은 첫째 「곤륜산-백두산」으로 이어지는 地脈에 의한 朝鮮땅의 서술, 둘째, 八道の 百科事典式 소개, 셋째, 山이 많아 들이 적은 地勢와 단군으로 부터의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한 고려까지의 社會·文化的인 것들을 서술하였고 그에 이어서 八道の 各各을論한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八道에 대한 것을 한마디로論한다면, “八道を 통털어 올바른 곳은 없다. 그 主된 要因은 士大夫階層의 계급적 악습을 조장한 制度和 士大夫階層 그 自體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이러한 판단의 이유는 卜居總論의 解析으로부터 찾을 수 있다. : 卜居總論의 檢討 참조)

卜居總論은 地理·生利·人心·山水로 구분하여 서술되고 있는 바, 집을 짓는 것은 자손 대대로 이

어 갈 토대이며 이를 위해서는 자리를 살펴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이러한 논지에서 「地理」를 서술하였다. 人倫을 지켜가는 士大夫의 道理를 위한 四禮의 수행은 곧 최소한의 財物을 要하며 그 財物은 또한 땅이 기름진 곳이거나 運送의 편리함을 취할 수 있는 바탕에서 비롯될 것이라는 觀點에서 극히 實事求是의 눈으로 「生利」를 말하였고, 살터를 잡음에 있어서 必然的인 要因으로 「人心」을 거론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주로 士大夫의 것을 염두에 두고 制度的인 面을 엄준히 다루면서 “士大夫가 없는 곳을 가려서… 홀로 자신을 착하게” 할 것을論하고 “이와 같으면 人心 또한 論할 것이 못된다.”는 所見을 폈다. 人心은 卜居를 위한 중요한 요소임은 틀림없으나 地理가 온전하고 制度에 무리가 없으면 人心은 저절로 그에 따를 밖에 없다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거기에 生利로써 四禮에 보태는 정도로 自重하다면 그로써 人心은 따로이 論할 바가 아닐런지도 모른다. 「人心」의 이러한 所見은 「總論」의 비약된 부분의 근거가 된다. 「山水」에서는 八道の 景觀을 특히 山을 중심으로 살피고 있는데 그것에는 八道總論에서와 같이 지역별로 나열하는 형식이 아닌, 뚜렷한 觀點에 의한 論調를 보이고 있다. 「山水」를 통하여 李重煥은 ‘10리밖 또는 한나절 거리에 경치가 아름다운 山水가 있는 곳’을 擇居하기에 좋은 곳으로 말해 보았다. 즉, 卜居總論에서 「人心」의 制度上的 問題와 같은 要因을 배제하였을 때, 하나의 理想的 現況을 가정할 경우, ‘10리밖 즈음에 山水가 있는 언저리의 生利를 취할 만한 곳’이 곧 理想的인 擇居의 場所인 것이다.

· 卜居總論의 檢討

本稿序頭에서 밝힌 바와 같이, 擇里志를 우수한 著述로써 認定하기 위해서는 내용상의 문제가 되는 점에 대한 설명이나 해석이 따라야 한다.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卜居總論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¹³⁾

「地理」를 살피는 데에 水口, 들의 형세, 山, 흙의 빛깔, 朝山, 朝水 등의 여섯가지의 조건을 들었고

그로부터 大地의 理致를 論하였는데, 이 여섯 조건이 風水地理에서 전개되는 중요한 요소들이기도 하므로 擇里志를 風水地理思想에 의거한 地理書로 파악되는 경우가 있다.¹⁴⁾ 「地理」를 風水地理의 解析으로써가 아니라, 風水地理를 「地理」의 解析을 위한 媒介要素로 活用한 것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오늘날에는 현대과학의 이론을 통하여 地理를 풀어 볼 수도 있을 것과 같이 당시의 전통사회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회자했던 이론체계중에서 풍수지리의 개념이 폄하되었다고 한다면, 그리하여 그것을 통하여 「地理」라고 하는 쉬 파악되기 힘든 대상을 풀어 해쳐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즉 그로써 地理의 파악을 위한 중요한 보편타당한 기본명제를 설정할 수 있다면 그 이론체계는 方法論으로서 매우 유용한 것이 된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방법론인 풍수지리적 이론체계 자체가 아니라 이를 통하여 도출해 내고자 했던 일정한 내용이 무엇인가에 있다. 「地理」에서 설정한 작업명제를 통하여 擇里志는 무엇을 論하고 있는 것인가. 「生利」를 論한 것은, 「地理」와는 다른 측면에서 즉 大地의 理致라고 하는 形而上學的인 것이 아닌 實生活의 부분을 거론한 것이다. 극히 實學者로서의 實事求是 또는 물질적인 측면을 강조한 부분이 된다. 택리지의 評함에 있어서 여러 연구들을 大別해 볼 때, 그 하나는 「地理」를 강조한 유형(대체로 지역이나 마을의 空間을 論하는 계통),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바로 이 「生利」를 중요시한 유형(대체로 인문사회계통에서 實學의 측면에서 바라본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렇듯 개별학문분야에서의 극히 뚜렷한 (동시에 제한된) 관점을 놓고 볼 때 택리지는 地理를 論한 風水地理書 또는 生利를 論한 實學書로 수용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러나 「살곳」이 生利만을 위한 곳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으로써 기준해 본다면 하더라도 「生利」만 특히 강조되는 것(동시에 「地理」만 강조되는 것)은 편협적인 것이 될 뿐이다. 바로 이 편협성이 「地理」를 통한 형이상학적 측면과 함께 「生利」를 論할 필요성으로 등장하게 하였고 그러므로써 「地理」에서 취한 바의 중요함이 바로 거기에 있게 되는 것이다.¹⁵⁾

13. 八道總論에는 道別로 地理의 條件과 歷史의 展開過程 및 그곳에서의 生活風俗에 관한 것이 서술되어 있고 그에 대해 肯定的·否定的 評價가 덧붙여 지고 있다. 그에 비하여 卜居總論에서는 「地理」·「生利」·「山水」가 名論되고 있으며 「人心」을 제외하고는 評價的 見解가 보이지 않는다는 點에 유의해 볼 필요가 있음.
14. “그(李重煥)의 地理學 理論은 風水地理의인 냄새를 풍기면서도 風水地理의 方法이나 態度를 단연배격하려 했으며 그러한 理論에 대하여 비판적 견해를 보인다.”(全相運, 1976 : 329)고 했으나 그러한 점은 擇里志의 어디에도 보이지 않으며, “...그러나 우리는 擇里志의 내용을 現代地理學의 立場에서 평가할 때 그것이 風水地理學에서 완전히 탈피하지 못한 것만은 인정할 수 밖에 없을 것”(全相運, 1976 ; 330)이라는 견해 역시 정확한 해석이라고 볼 수는 없음.
15. 大地의 형상으로부터 大地의 理致라고 하는 추상적인 面을 취해야 할 극히 어려운 과정을 여섯 요소를 통하여 構造的 解析을 함으로써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

「人心」에서는 서민의 경우임을 전제하고 八道の 人心을 특징적으로 論하였다. 그러나 士大夫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극히 비평적인 論調로 일관되어 있다. 이러한 점이 卜居總論에서 유독 「人心」에서만 지극히 부정적인 관점을 보이는 원인이다. 四民總論에서 보이듯, 士大夫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人倫을 통하여 人事를 취하는 도덕적 부류로서의 本然의 모습이 계급적 상위계층의 모습으로 고착된 것에서 그 병폐의 요인이 생기게 된 것이다. 당시의 八道는 士大夫의 당쟁으로 인한 社會的 혼란이 있었고 바로 이 「人心」에 해당되는 要因으로서 살만한 곳을 생각함에 큰 장애요소가 되고 나아가 「地理」나 「生利」도 아무런 意味도 지니지 못한다는 점이 內包되어 있는 것이다.¹⁶⁾ “무릇, 天地가 생긴 이래로… 人心이 타락하여… 봉당의 폐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나라 말고 또 있겠는가”라는 「人心」의 極論에 이르는 한탄과 “이를 이대로 두고 바로 잡지 않는다면 장차 어떤 세상이 될 것인가”라고 부연되어야 할 만큼 중대한 要因이 되는 것이다.¹⁷⁾ 卜居를 論함에 있어서 「人心」이 특이한 내용으로써 그리고 極論에 이르는 비평적 견해로써 다루어 진 것의 본뜻은 卜居總論에 관한 내용의 흐름상으로 보더라도 쉬 드러나지 않는 점이다. 이것을 통하여 그가 意圖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이이었을까.

「山水」는 八道の 山水를 분석·해석한 부분이 되고 그로부터 백두산을 비롯한 무수한 名山들을 論外로 취급한 점에 유의해 볼 필요가 있다. 「山水」에서는 먼저 八道景觀을 論하는 기본관점을 세워, 첫째, 山脈을 통하여 全國土를 살펴보면서 ‘中國에 攄하는 형세’와 ‘巨人이 나지 않음’이라는 숙명론을, 둘째, 歷史的 展開事實을 地勢와 관련시킨 서술로써 또 다른 面에서의 숙명론을 세우고 이러한 前提下에서 八道の 景觀을 자신이 보고 들은 바로써 말해 보았다. 山을 중심으로 살펴 본 八道景觀은 뚜렷한 特性別 類型으로 分類된 論點에 의해 分析·評價되고 있는데, 첫째, 금강산-설악산-오대산-…

등으로 이어지는 名山 自體의 서술에서 “백두산에서 태백산까지는 한 줄기의 嶺이어서 左右에 봉우리가 없지만 소백산 이하에는 좀 다르다”라는 嶺과 峯에 의한 大別을, 둘째, 소백산 이하에는 맥이 자주 끊어져 峯을 이루며 이렇듯 끊어져 된 처음의 山인 속리산을 비롯한 큰 峯을 이룬 名山들을, 셋째, 경상도 유일의 火窟인 가야산을 중심으로 전국의 열두곳 名山을 서술함으로써 名山에 관한 총체적 서술을, 그리고 넷째, 살 수는 없으나 名勝으로 일컫는 山이나, 山은 있으나 풀이 없는 것 그리고 泉石이 없는 것들은 모두 영구히 집을 두고 살 곳이 아님을 들어 論外로 함을, 다섯째, 바다 북반의 山으로써 한라산을 비롯한 도서들을, 여섯째, 名山 밑이 아니더라도 水石이 기이하거나 山과 이름난 湖水가 어울려 훌륭한 것 그리고 野邑이라도 山水의 경치가 있는 곳에 관한 서술을 하였으며 끝으로는, 기타 嶺을 떠나 들만에 내려 앉은 시냇가 마을들을 언급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八道の 景觀分析의 觀點¹⁸⁾을 뚜렷이 하고 있다. 이러한 觀點은 나아가 거의 모든 큰 산의 경우에 이르기까지도 水와 조화되지 못한 곳 그리고 계곡에 살 만한 터를 지니지 못한 것은 모두 論外로 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여기서의 山水의 논거는 名山을 서술하고 수려한 모습을 설파한 것이 결코 아님을 알 수 있다. 대체로 山水가 수려한 곳은 生利가 박한 경우가 많다는 李重煥의 見解와 관련시켜 보더라도 그의 觀點은 진정 ‘살 만한 곳’에 集中되고 있으며 그리하여 「山水」도 ‘살 곳’과 관계되는 범위에서 살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들과 水가 이름없는 山과 관계되어도 無關한 것이고, 바꾸어 말하자면, 들과 水와 調和된 山은 이렇게 이름없는 평범한 山 일 수 밖에는 없을 것이라는 論旨일 수 있다. 八道總論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中國大陸으로부터 흘러온 地脈, 八道の 地形이 中國에 攄하는 形勢라는 점 그리고 대체로 山이 많고 들이 적어 사람들이 검소하고 기개가 웅출하다는 것— 이러한 내용을 들어 성급한 見解를 피력할 우려도 없지 않으나¹⁹⁾ 이러한 점은 결국 「山水」에서 여러 마

16. 卜居總論에서 「地理」·「生利」·「山水」의 내용과 같은 흐름으로써 「人心」의 내용은, 각 지방의 특징적인 성격이나 風俗 등에 관한 것이어야 바람직 하리라고 보인다. 그러나 실제 「人心」에서 거론된 것은 사회비평의 論調가 되어 있음으로써 卜居總論에 걸맞은 서술이 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 점도 擇里志 全體에 흐르는 모순적 서술의 한 例가 되지만 이는 意圖된 것으로 보인다.

17. 바로 이점을 단순한 한탄으로 간주하여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경우(특히, 空間을 다루는 研究의 경우), 또는 이점에 극히 심혈을 기울이는 경우(歷史的 觀點의 경우)의 두 극단적인 現象을 볼 수 있다. 前者의 경우는 卜居總論에서의 異質的 要素로 간주하여 도외시 되기 쉬울 것이며 後者의 경우는 「地理」 또는 「山水」를 소홀하게 되어 바로 그러한 편중된 觀點에서의 擇里志는, 例를 들자면 歷史書로서의 力作으로 비추어 질 수 있을 것이다.(註8 참조)

18. 山을 중심으로 하여 그에 對應하는 要素인 水를 동반시켜 소위 山水對應의 개념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條件은 山이며, 山은 水와 더불어 調和될 수 있는 條件을 지녀야 하며 그 條件은 名山의 條件이 아니라 소박한 모습의 것이어야 할 것임이 內包되어 있다.

19. “...그러나 ‘千里되는 물이 없고 ...유독 우리 민족만은 그런 일(中原에 進出한 일)이 없다’하여 개탄한 것은 ...어쩐지 수궁되는 느낌이다.”(李翼成, 1979 ; 7)

을과 고을들을 들어가며 강조한 ‘이름없는 산과 조화된 산’이 있는곳에 관한 내용과 의미심장하게 연결되고, 「人心」과 관련된 ‘揖하는 形勢’에서 사는 ‘검소하고 응졸한 사람’의 意味는 곧 ‘禮道·소박함’ 등의 語義를 지니면서 擇里志의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파악되어야 할, 意圖性을 內包하고 있을 것이다.(작업가설② 참조)

4. 擇里志의 解釋

擇里志의 모순성을 要約해 보면, 東西南北 갈 곳이 없다는 總論에서의 否定的인 見解와 그것의 도출되어 온 論證資料로서의 八道總論과 卜居總論의 內容과의 상충이라 할 수 있다. 李重煥이 밝힌 바와 같이 ‘글 밖에서 取할 바’가 있으나 그것을 取하지 못하고 글로써 表現된 것만으로 보면 이같은 모순에 빠질 수 밖에 없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李重煥은 擇里志의 內容으로써 글 밖의 숨은 어떤 뜻을 意圖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孔子와 莊子를 두고 언급한 「실제」와 「실체가 아닌 것」의 意味는 「現實」과 「理想」이라는 對比되는 兩面性 그리고 「글로써 나타난 것」과 글을 매개로 하여 펴고자 하는 「글 밖에서 찾아 봐야 할 보이지 않는 뜻」과 같은 外形性과 內面性의 개념이 될 수 있다. 現實과 理想의 兩面性을 李重煥 자신의 立場으로써 풀어 볼 때, 實學者로서의 實事求是의 面과 理想家로서의 현실극복의 面의 二重의 立場을 나타내 보인것일 수도 있다.

모순적 서술에 관한 부분을 간과한다고 하면, 擇里志의 內容을 통해 우리는 극히 實事의이고 담담한 서술태도를 찾아 볼 수 있다. 이는 또한 상당히 實證的이거나 體驗的 資料에 의한 것으로 판단될 만한 것이므로 해서 그로부터 傳統社會에 관한 具體的인 資料들을 풍부하게 取해 왔던 背景이기도 하다. 擇里志에 介在된 모순의 核이 되는 것은 이미 살펴 본 바와 같이 「人心」 또는 「四民의 구조적 병폐」에 있다. 李重煥은 「실제인 것」을 가지고 이 문제의 해결을 論하지 않았다. 곧 그 문제가 (當時의) 現實的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이므로 결국 「地理」·「生利」·「山水」의 如何에 관계없이 살만한 곳이 없을 수 밖에 없다. 이렇듯 「실제」의 「현실」로써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했는가. 「실체가 아닌 것」으로서의 「理想」은 현실도피 또는 현실극복의 양상을 지닌다. 李重煥을, 이를 수 없는 꿈을 좇는 者로서가 아니라 實學者의 立場의 理想家, 즉 實現可能한 理想을 추구한 者로서 보고, 實事求

是로써 추구하고자 했을 理想을 論해 보기 위하여 擇里志를 몇가지의 작업가설로써 살펴보고자 한다.

· 작업가설①: 「사대부에 의한 제도적 악습(당쟁)이 없는 세상」

「人心」에서 함주어 말한 사회적 병폐는 李重煥이 「살곳」을 論하는데 큰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만약에 그러한 병폐가 없는 사회가 존재한다면 八道總論에서 否定的으로 언급된 많은 경우, 例로써 嶺南이나 湖南은 嶺南의 「時勢」나 湖南의 「人物·風俗」이 모두 「人心」에 관련된 점임을 유의해 볼 때, 살만한 조건을 잘 갖춘 곳이 된다.

· 작업가설②: 「山水가 조화를 이룬 곳은 生利를 취할 바탕이 함께 있는 곳」

一名山이라 하더라도 제곡에 터 잡을 만한 땅이 없는 곳이라면 살 곳이 못 된다. 그러므로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名山·名勝의 조건보다도 山水가 조화된 곳이어야 한다. 백두산이 八道の 祖宗山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금강산이 그 수려함에 따를 山이 없을 정도의 名山·名勝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곳들이 사람 살기에 적합하지 못하다면 擇里를 위한 山水를 論함에서는 제외될 수 밖에 없다. 山과 들이 그리고 거기에 水가 어우러져 그것을 바탕으로 生活이 영위될 수 있는 바탕이 갖추어 질 때 사람들은 거기에 깃들고 존속하게 된다. 「山水」에 열거된 十二名山이 아니더라도 아름다운 물과 조화를 이룬 여러 마을들은 하나같이 「山水間의 한 곳」에 해당된다.

함경도나 강원도의 대부분이 조악한 경우라 하지만 그것은 “論外로 할 경우”이기 때문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면 강원도 例와 같이 “배를 取하여 …生利를 영위할 만한 곳”이 적지 않다. 우리나라의 八道가 전반적으로 山이 많고 또한 나즈막하여 결국은 名勝의 조건을 갖추지 못했고(그곳의 사람들도 관대하거나 풍성하지 못하여 위대한 인물(巨人)이 나지 않는다) 그 모든 山間에는 자그마한 골짜기나(기암절벽이나 거대한 폭포수 또는 엄청난 물량의 江이 아닌) 가느다란 개천이나 개울이 있을 뿐이라고 할 때, 이러한 특성의 八道 山水地勢는 어디에나 士大夫로서 擇居할 만한 山水間의 터를 이루고 있고 그로부터 자연히 四禮를 위한 최소한의 財物을 取할 만한 生利의 바탕을 이룬 곳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擇里志를 통하여 李重煥의 뜻을 파악해 볼 때, 그는 地理書의 형식을 빌어 山川·社會·歷史 등의 모든 것을 서술하였고 그러한 서술을 통하여 파악한 八道の 모든 것은 지극히 소박한 모습으로 비쳐졌을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현실적 장애요소는

사회제도적 병폐, 즉 人爲의인 것에 있었다. 이러한 가장 핵심적인 문제성을 지닌 부분과 부분적으로 오해의 소지를 지닌 逆說의 內容의 것들은 위와같은 일정한 가설을 통해 전혀 다른 성격의 것으로 설명해 볼 수 있다.

여기서 작업가설①과 관련하여, 理想郷의 설정을 말하자면 當時와 같은 士大夫에 의한 병폐가 없는 時點이나 空間의 背景의 설정을 어떻게 해석·수용해 보아야 할 것인가, 그러한 理想郷의 時·空間의 곳이 當時의 그의 뇌리에는 어떤 근거와 어떤 가능성으로써 존재하고 있었을까, 라는 점이 검토가 필요하다.

· 작업가설③ : 「그 理想郷은 實現을 確信할 수 있는 現實의 것」

- 李重煥은 그 理想郷을 무릉도원으로써 동경한 것이 아니라 먼 훗날의 八道에서 實現이 確實한 것으로 보았을 것이다. 어느 時代를 막론하고 시대적인 병폐나 장애요소는 있기 마련이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속한 時代나 場所에 회한을 품고 그렇지 않았을 옛날을 동경하거나 먼 훗날의 어떤 상황을 願望하게 된다. 具體的으로 李重煥은 四民의 구별이 없던 始源의 時點 또는 士와 農工商이 구별되기 시작했던, 그러나 士가 벼슬을 두고 돌아와 農工商에 임하여도 수치스러울 필요가 없었던 時代를 돌이켜 보게 된다. 그가 跋文에서 論했듯이, “東西南北 같 곳이 없다. 東西南北의 區別이 없는 太極圖와 같은 것 … 士가 農工商을 부러워 하게 되고 하는 것은 하나의 物이 極에 달하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自然的 理致”이듯이 그는 이와같은 易思想에 근거한 理想郷을 그려보게 된다. 이렇듯 易의 原理로 미루어 볼 때, 士農工商의 구별이 없는 始源의 時代와 같은 社會는 꼭 돌아 올 수 밖에 없다. 그가 黃山江가의 八卦亭에 올라 생각해 본 擇里志는 곧 易思想에 기반을 둔 基本思想을 매우 상징적으로 내보인 것이 된다.

擇里志에서 추구한 理想郷은 孔子의 「실제인 것」과 莊子의 「실체가 아닌 것」(얼핏 허황된 것일지도 모르는 것)을 통하여 그 뜻을 펴는 것과 결부되어 있다. 땅의 理致를 論하는 「地理」이거나 實事求是의 「生利」이거나 時俗에 관한 「人心」 또는 주어진 自然條件으로서의 「山水」이거나 그 모두가 「실제인 것」, 實學者의 立場에 부응하는 일들이다. 그는 지극히 객관적인 입장에서 八道の 山水·風俗을 관찰하고 이해하려 했다. 實證的 資料를 통하여 엄정한

論理로써 서술하였다. 八道の 山水를 觀한 것에 대한 글로써 「글 밖의 것」을 이루어 놓고 있는 바, 이는 易의 原理를 빌어서 實現確證的인 理想郷에 관한 뜻을 세워본 것이라 할 것이다.

5. 要約 및 見解

이상에서 살펴 본 擇里志의 內容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① 擇里志는 經驗과 資料를 통해 서술한 實證的인 부분과 一見 크게 비약된 듯 보이는 總論末尾部分을 비롯한 문맥이나 내용의 앞뒤가 통하지 않는 크고 작은 모순성이 內包된 부분으로 되어 있다.

② 이들 대부분은 四民과 관련된 사항이란 점에 공통성이 있고 이들은 압축된 서술로써 總論에 다시 集約되어 있다. 이같은 要素 및 要因들은 本稿의 작업가설로써 살펴 본 바와같이 「人心」과 관련된 四民에 대한 理想的 條件이 前提될 때 모두 극복될 수 있다.

③ 이러한 理想的 條件의 設定은 易의 原理로써 媒介시켜보면 지극히 論理的이고 合理的으로 무리없이 이루어 질 수 있다.(작업가설③)이 易에 관한 것은 總論末尾의 「太極圖」에서 암시된 바 있고 이 부분의 비약된 내용은 易과 관련되어 해석될 사항이다.²⁰⁾

④ 전체적인 문제점이 극복된 상황에서는 卜居總論이 다음과 같이 검토되어진다.

· 「地理」는 특히 擇里志가 風水와 연관지어지는 要因이 되어 왔지만 여기서의 風水의 用語 및 概念은 땅의 理致라는 형이상학적·추상적 대상을 可視的이고 具體的인 形狀으로써 파악할 수 있게한, 活性化를 위한 해석의 수단이었다.

· 「生利」는 四禮를 갖춘 生活을 위한 최소한의 財物을 도모할 필연적 요인이며, 「地理」가 추상적 대상이 아닌 實體의 媒體가 됨으로써 그로부터 生利와 地理는 (自然條件에 관한) 相補的 要因이 될 수 있다.

· 「人心」은 비로소 그 內容上의 否定的이고 異質的인 點이 풀려나가게 되어 (人間事에 관한 正當한 要因으로써), 擇里를 위한 諸考察은 「地理」·「生利」·「人心」의 總體的인 體系속에서 가능해진다.

· 「山水」는 이같은 擇里를 위한 原論的인 틀에 의해 實地에 대한 事例研究의 性格을 보인다.

⑤ 擇里志의 「事實」에 의한 實事求是性이 「事實」이 아

20) “내가 黃山江강에 있으면서 … 八卦亭에 올라 … 論述한 바가 있다.”(李翼成, 1979 : 275)

닌 것으로서의 理想郷(땅 아닌 땅)의 것으로 펼쳐질 수 있는 것은 易의 교량적 역할에 있다. 이는 곧 總論에서 비약된 전환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

⑥결국 擇里志는 ‘自然과 人間의 相關性’이란 觀點에서 論議될 수 있게 된다. 즉, 이 自然의 어느 곳에 나의 몸을 담을 것인가, 라는 命題를 놓고 現實과 理想으로써 살펴 본 것이다.

本稿의 動機 - 擇里志의 本質的 理解를 위한 全體 흐름의 검토 - 는 景觀의 研究를 위한 중요한 資料로서의 擇里志(특히 卜居總論의 「山水」)를 檢討하는 과정에서 要求된 點과 關係되어 있다.

「人心」 또는 四民總論에서 前提된, 擇里의 命題를 통한 뜻을 세움에 장애가 된 要因을 實事로써 개선·극복하는 것은 當時의 極에 달한 狀況으로 보아 現實적으로 不可能한 일이었다고 본다면, 이를 위해서는 어떤 종류의 實事의 方策도 別無效果의 것이 될 뿐이다. 이러한 상황은 「實際가 아닌 것」(理想郷의 設定)으로써 克服될 수 밖에 없다. 李重煥이 그러본, 易을 바탕으로 한 그 理想郷은 易의 原理, ‘萬物은 變한다’는 觀點으로 自然과 人間事를 觀한 그의 山水觀의 表出이라 하겠다. 그 山水觀은 구체적으로, 「山水」를 論한 體系와 그것에 숨겨진 文意

로써 表出되고 있다.

「山水」를 論함에는 「地理」·「生利」·「人心」에서 論한 것을 토대로 하여 이들이 은연중에 반영된 體制를 취하고 있다. 外形的으로는 制度에 희생된 자신의 恨이 表出되었을 법한 ‘擇居할 곳이 없다’라는 總論에서의 所見이 오해의 소지²¹⁾를 지닌채 介在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山水」를 論함에서 그러한 點은 추호도 보이지 않고 있다.²²⁾ 그것은 곧 內面的으로 강하게 분출되고 있는 文意로써 景觀을 지극히 人間적으로²³⁾ 觀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참고문헌

1. 韋元學(1985) 地域異論으로서의 擇里志에 관한 研究, 檀國大 碩士學位論文.
2. 李翼成 譯(1979) 李重煥 擇里志, 서울: 을유문화사.
3. 全相運(1976) 韓國科學技術史, 서울: 정음사.
4. 鄭杜熙(1988) “李重煥”, 韓國史 市民講座 제3집 서울: 일조각.
5. 崔昌祚(1984) 韓國의 風水思想, 서울: 민음사.

21. ‘太極圖 以下의 비약된 부분을 비롯한 여러 모순성을 밝히지 못했다면, 엄밀히 말해서 擇里志의 結論은 ‘살 곳이 없다’에서 취해져야 한다고 봄.

22. 「山水」에는 “中國에 攄하는 형세, 巨人이 나지 못한다” 등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 (註 19참조)이 점은 고찰의 여지가 남아 있는 本稿의 미해결사항이며 次後 「山水」를 중점적으로 고찰할 기회에 다룰 예정이다.

23. 人間의 側面에서 山水를 觀하거나, 山水로써 人間의 本然을 觀照하는 마음으로.